2부 죄 죽이기란 무엇인가

# 죄 죽이기 5편 죄가 잠잠하면 죽은 걸까 · 죄 죽이기가 아닌 것들

2부 5장(74~81쪽)

> ❓ **요즘 그 죄 안 짓는데, 이제 이긴 거 맞지?**

### 🧭 흐름 한눈에

4편에서 오웬은 영적 삶의 힘과 위로가 죄 죽이기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제 그는 본론의 질문을 던진다. “강한 죄에 시달리는 참된 신자는 어떻게 해야 그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평강을 지킬 수 있는가?” 오웬은 답을 바로 주지 않는다. 잘못된 토대 위에 서지 않도록, 사람들이 흔히 죄 죽이기로 착각하는 다섯 가지를 먼저 걷어 낸다.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 겉으로만 그만두는 것, 타고난 성품을 다듬는 것, 죄의 형태를 바꾸는 것, 가끔 거두는 승리가 그것이다. 결론은 이렇다. 죄가 조용해 보이는 많은 순간에도 죄는 살아 있다. 그러니 '잠잠한 죄'와 '죽은 죄'를 구별해야 하고, 그래야 6편에서 다룰 참된 죄 죽이기로 나아갈 수 있다.

### • 지침 카드

## 📜 절별 정리

### 📜 1. 본론의 첫 질문: 싸우면서 평강을 지키는 길 (5장)

오웬은 이제 신자 안에 남은 죄를 죽일 때 생기는 실제적인 질문들로 들어간다고

더럽히고, 속임수로 마음을 굳게 만든다. 이 사람이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싸우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평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웬은 먼저 죄 죽이기가 '무엇이 아닌지'(5장)와 '무엇인지'(6장)를 밝히고, 그다음 일반 지침과 구체 지침을 주겠다고 예고한다. 이 순서는 우리가 잘못된 토대 위에 서지 않게 하려는 배려다. 이 책은 죄에 대한 일반론이 아니라 지금 싸우는 신자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다.

1. 본론: 강한 죄 앞의 참된 신자는 어떻게?
2. 목표는 싸우며 교제와 평강을 지키는 것
3. '아닌 것'을 먼저 걷어 내야 토대가 선다
4. 순서: 아닌 것 → 인 것 → 지침들
5. 일반론이 아닌 지금 싸우는 이를 위한 답

> **★로마서 8:13**
> (이 장에서 직접 인용하지는 않음) 책 전체의 토대 구절. 본론의 질문은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를 지금 싸우는 신자의 자리에서 묻는 것이다

## 📜 2.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다 (5장)

오웬은 먼저 죄 죽이기를 죄를 뿌리째 뽑아 다시는 마음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일로 여기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은 두 방향의 오해를 함께 막는다. 완전한 박멸은 분명 목표다. 죄가 아예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 목표는 이 세상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믿음과 사랑에서 견줄 이가 없던 바울도 자신은 아직 얻지 못했고 온전히 이루지 못해 달려간다고 했다. 우리 몸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실 '낮은 몸'이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아신다.

1. 완전한 박멸은 목표, 그러나 현세엔 미완
2. 박멸을 바라지 않으면 진짜 싸움이 아니다

4. 완성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5. 내 온전함은 내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빌립보서 3:12**

바울조차 이미 얻거나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달려간다'는 증거

>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15**

남과 비교한 '온전함'은 상대적일 뿐이라는 점

>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빌립보서 3:21**

죄의 완전한 제거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짐

>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골로새서 2:10**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위로

>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 📜 3. 겉으로 짓던 죄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5장)

오웬은 죄를 숨기는 것이 죄 죽이기가 아니라는 점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며 짧게 다룬다. 어떤 사람이 겉으로 짓던 죄를 멈추면 사람들은 그가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죄를 버린 것이 아니라 속으로 여전히 짓고 있다. 게다가 속은 그대로인데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위선의 죄까지 더했다. 그의

1. 겉 행동 중단 ≠ 죄 죽이기
2. 사람은 “변했다” 해도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
3. 숨긴 죄 위에 위선이 더해진다
4.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고 교활해질 수 있다

> **(직접 인용 없음)**
> 오웬은 이 점을 자명한 것으로 보고 짧게 다룬다

### 📜 4. 타고난 성품을 다듬는 것이 아니다 (5장)

날 때부터 온순하고 차분해서 혈기를 부리는 일이 드문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수양과 생각의 훈련으로 성품을 다듬으면 자기 눈에도 남의 눈에도 죄를 거의 다 죽인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온갖 가증한 것이 마음 밑바닥에 그대로 가라앉아 있을 수 있다. 오웬은 두 사람을 견준다. 한 사람은 평생 화낼 일 없이 살았고, 다른 사람은 거의 매일 분노와 씨름하며 자기도 남도 괴롭게 했다. 그런데 뒤의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죽인 사람일 수 있다. 앞사람은 기질상 싸울 필요조차 없었고, 그러는 사이 자기만족과 불신앙과 시기 같은 마음속 죄에 빠져 있으면서 신앙이 좋다고 착각했을 수 있다.

1. 온순한 기질 ≠ 죄를 죽인 상태
2. 수양은 겉을 다듬어도 뿌리는 그대로
3. 매일 분노와 씨름하는 이가 더 죽였을 수도
4. 기질 덕에 안 짓는 죄는 싸워 이긴 게 아니다
5. 자기만족·불신앙·시기를 놓치기 쉽다

> **(직접 인용 없음)**
> 오웬은 성경 인용 대신 두 사람을 견주는 예로 논증한다

오웬은 마술사 시몬을 예로 든다. 시몬은 신앙을 고백하고 한동안 마술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그를 움직이던 탐욕과 야심은 그대로 남아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는 모습으로 다시 흘러나왔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고 말했다. 어떤 욕망을 경계하면 그 욕망이 그 모양으로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욕망을 만들어 내는 부패한 본성은 다른 모양으로 터져 나온다. 오웬은 이를 종기에 비유한다. 피부의 종기 하나를 치료했다고 병이 나은 것이 아니다. 뿌리를 다루지 않으면 다른 자리에 또 종기가 난다.

1. 한 죄를 막아도 욕망은 다른 길로 흐른다
2. 시몬: 마술은 끊었지만 탐욕·야심은 그대로
3. 문제는 가지가 아니라 부패한 본성이라는 뿌리
4. 종기 하나 치료 ≠ 완치
5. 다른 자리에 또 종기가 난다

> **사도행전 8:23**
> 겉의 죄(마술)를 버려도 속의 악독과 불의의 매임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실례
>
>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 📜 6. 죄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② 주인만 바꾼 종 (5장)

오웬은 이런 형태 변화가 은혜와 상관없는 이유로도 자주 일어난다고 경고한다. 관계나 이해관계나 계획이 바뀔 때 그렇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며 체질과 성향이 달라질 때도 그렇다. 나이 든 사람은 젊을 때의 욕망을 하나도 죽이지 않았는데도 그 욕망에 더는 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만하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정욕을 좇던 사람이 규범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이 되고, 허영을 즐기던 사람이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된다. 오웬은 이것이 죄를 죽인 것이 아니라 섬기는 주인만 바꾼 것이라고 말한다. 청년의 말로 하면, 쾌락을 좇던 마음이 스펙과 성공을 향한 야망으로 옮겨 가도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

2. 안 끌린다고 죽인 것은 아니다
3. 교만→세상 사랑, 정욕→깐깐한 율법주의
4. 허영→남을 업신여김
5. 주인만 바꾼, 여전히 죄의 종

> **사도행전 8:23**
> 앞 절에서 이어지는 근거. 죄의 모양은 바뀌어도 '매임'은 그대로임
>
>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는 단지 자신의 주인을 바꾼 것일 뿐이고, 그 자신은 여전히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 📜 7. 가끔 거두는 승리 ① 죄가 터진 직후의 비상 상황 (5장)

죄 죽이기는 어쩌다 한 번 죄를 이기는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이겼다"고 착각하기 쉬운 첫째 경우는 죄가 갑자기 터져 나온 직후다. 평안이 깨지고, 양심이 떨고, 수치심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해 보이면 온 마음이 번쩍 깨어난다. 죄도 자신도 혐오스럽고,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부르짖으며 그 욕망을 지옥 보듯 거부한다. 그러면 죄는 머리를 처박고 죽은 척한다. 오웬은 이를 자객에 비유한다. 장수를 죽인 자객은 호위병들이 나팔을 불며 수색하는 동안 숨어 있다가, 같은 기회가 오면 다시 친다. 고린도 교회가 죄를 깨닫고 크게 분발한 것처럼 그 열심 자체는 진실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 상황이 끝나면 도둑은 다시 일하러 나온다.

1. 넘어진 직후의 각성은 "이겼다"는 착각을 준다
2. 수치·두려움·혐오가 한꺼번에 죄를 누른다
3. 죄는 죽지 않고 숨어 기회를 엿본다
4. 진실한 분발도 그 자체로 죽임은 아니다

**고린도후서 7:11**

죄가 드러난 뒤 신자들 안에 일어나는 격렬한 경각심과 분발의 실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객은 죽은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며 단지 가만히 있는 것일 뿐"

## 📜 8. 가끔 거두는 승리 ② 환난 속의 결심 (5장)

둘째 경우는 심판이나 재난이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다. 이때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지에 몰두한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를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은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이므로, 그는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결심이 살아 있는 동안 죄는 그를 다스리지 못하니 죽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죄는 상처 입지 않았다. 죄를 대적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숨을 죽였을 뿐이고, 그 생각들이 힘을 잃으면 다시 살아난다. 시편 78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치실 때 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았지만, 마음이 정함이 없어 죄는 죽지 않았다. 오웬은 고난으로 마음이 낮아진 때에 신자들 안에서도 이런 속임수가 흔하다고 경고한다. 그러니 이 모든 경우를 지나며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다. 죄가 잠잠한 것과 죄가 죽은 것은 다르다.

1. 고난 속엔 진노를 피하려 죄를 끊기로 결심
2. 죄는 다친 게 아니라 밀려서 숨죽였을 뿐
3. 결심이 식으면 죄는 활력을 되찾는다
4. 이스라엘은 진심으로 돌이켰으나 죄는 살았다

기적을 보고도 범죄해 두려움 속에 날을 보낸 이스라엘의 상태

32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33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시편 78:34-35**

하나님이 치실 때 돌이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진지한 반응

34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35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시편 78:36-37**

그 진지함에도 마음이 정함이 없어 죄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

36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37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 **착각과 진짜 비교판**

| 이것은 죄 죽이기가 아니다 | 이것이 죄 죽이기다 (6편에서 자세히) |
|---|---|
| 죄를 완전히 없애야 이긴 것이다 | 죄의 뿌리를 날마다 습관적으로 약하게 만들어 가는 것 |
| 겉 행동만 멈추고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하기 |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뿌리와 끊임없이 싸우는 것 |
| 원래 순한 성품을 다듬어 차분해 보이기 | 기질이 아니라 실제로 남아 있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것 |
| 쾌락을 끊고 야망으로 옮겨 가기(죄의 | 가지가 아니라 욕망의 뿌리 자체를 약하게 하는 |

| 이것은 죄 죽이기가 아니다 | 이것이 죄 죽이기다 (6편에서 자세히) |
|---|---|
| 넘어진 직후나 고난 중에 잠깐 거둔 승리 | 비상시가 아닌 평소에 실제로 이겨 나가는 것 |

왼쪽 다섯 칸은 2부 전체의 지도다. 5편은 왼쪽을 걷어 내고, 6편은 오른쪽을 채운다.

왼쪽은 모두 '죄가 조용해진 상태'를 '죄가 죽은 상태'로 착각한 것이다. 오른쪽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이어지는 방향이다.

## ⚖️ 오해와 반론

## 📖 용어

**죄 죽이기**
내 안에 남은 죄의 뿌리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약하게 만들어 끝내 이기는 일이다.

**내재하는 죄**
거듭난 신자 안에도 여전히 남아 활동하는 죄의 성향이다.

**정욕(욕망)**
성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죄를 향해 마음을 끌어당기는 모든 그릇된 갈망이다.

**양심**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증언하는 마음의 기능이다.

**율법적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형벌과 진노가 무서워서 죄를 멈추는 두려움이다.

**그리스도의 충만**
신자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온전함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있다는 사실이다.

**위선**

**영적인 죄**

자기만족, 불신앙, 시기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마음속에서 일하는 죄다.

**부패한 본성**

여러 죄의 모양을 만들어 내는 타락한 내면의 뿌리다.

**간헐적 승리**

위기나 충격의 순간에 죄가 잠시 눌린 것을 죄가 죽은 것으로 착각하는 상태다.

## 💬 청년의 삶으로

## ✅ 이 편의 결론

- 죄 죽이기의 목표는 죄의 완전한 제거지만, 이 세상에선 다 이루지 못한다. 우리의 온전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 겉으로 그만두기, 기질 다듬기, 다른 죄로 갈아타기는 죄 죽이기가 아니다. 위선이거나 주인만 바꾼 것이다.
- 넘어진 직후의 각성이나 고난 속의 결심으로 죄가 잠잠해져도 죄는 죽지 않았다. 숨죽여 기회를 엿볼 뿐이다.
- 그러니 “요즘 안 짓는다”는 사실만으로 이겼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더 정확한 싸움으로 부르는 초대다.
- 이 착각들을 걷어 내야 6편의 참된 죄 죽이기, 곧 습관적 약화와 끊임없는 싸움과 실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

## 📚 이 편의 장별 정리 노트

- 죄 죽이기 · 5장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닌 것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